

수능 국어 공작소

학교명: _____

이름: _____

[예체능 학생을 위한 고급 모의고사 3]

예체능 고급 모의고사 2

※ 정답 및 해설 16

1. ㉠~㉣에 일어난 음운 변동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조음 방법	조음 위치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파열음	평음(예사소리)	ㅂ	ㄷ		ㄱ	
	경음(된소리)	ㅃ	ㄸ		ㄲ	
	격음(거센소리)	ㅍ	ㅌ		ㅋ	
파찰음	평음			ㅈ		
	경음			ㅉ		
	격음			ㅊ		
마찰음	평음		ㅅ			ㅎ
	경음		ㅆ			
	격음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 ㉠ 부엌만[부영만], 밥 내오다[밤내오다]
- ㉡ 꽃밭[꼰밭], 밥그릇[밥끄르]
- ㉢ 밟는[밤는], 훑빨래[훑빨래]

- ① ㉠은 모두 두 음운이 만나 한 음운의 조음 위치가 달라졌다.
- ② ㉡은 모두 두 음운이 합쳐질 때 그 사이에 새로운 음운이 덧붙었다.
- ③ ㉢은 모두 두 음운이 만나 한 음운의 조음 방법이 달라졌다.
- ④ ㉠, ㉡과 달리 ㉢은 앞에 오는 음운이 뒤 음운에 영향을 주었다.
- ⑤ ㉠~㉢은 모두 두 음운이 만나 하나의 음운으로 줄었다.

2. <보기>를 읽고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명사는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자립 명사와 의존 명사로 나뉜다. 의존 명사는 반드시 그 앞에 관형어가 수식해야 문장에서 쓰일 수 있는데, 앞에 오는 관형사형 어미나 뒤에 결합되는 조사가 제한되는 등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다. 조사와의 결합이 제한되는 경우 특정한 격 조사와만 결합하여 특정한 문장 성분으로만 쓰이며, 반대로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특정한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 ㄱ. 고향을 떠나는 **지** 한 달이 넘었다. / 고향을 언제 떠났는 **지** 를 모른다.
- ㄴ.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 그는 의자에 앉은 **채로** 잠이 들었다.
- ㄷ. 우리 집 강아지는 나를 보자 반가워 **어쩔 줄을 몰랐다.** / * **어쩔 줄이 몰랐다.**
- ㄹ. 사실을 아는 **이가 많다.** / 아는 **이를** 찾았다.
- ㅁ. 눈이 **내리는** / ***내린** / ***내리던** 바람에 길이 다 얼었다.
* 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

- ① ㄱ을 보니 의존 명사 '지'는 주어와 목적어로 쓰일 수 있다.
- ② ㄴ을 보니 의존 명사 '대로'는 의존 명사 '채'와 달리 조사를 취하지 않고 부사어의 기능을 한다.
- ③ ㄷ을 보니 의존 명사 '줄'은 목적어로서 쓰이고 주어로는 쓰일 수 없다.
- ④ ㄹ을 보니 의존 명사 '이'는 주어로도 쓰일 수 있고, 목적어로도

쓰일 수 있다.

- ⑤ ㅁ을 보니 의존 명사 '바람'은 관형사형 어미 '-는'과만 결합한다.

3. <보기 1>을 읽고 <보기 2>의 밑줄 친 부분에서 알 수 있는 중세 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1

중세 국어 주체 높임의 대표적 형태는 선어말 어미 '-시-'인데, 모음 어미 앞에서는 '-샤-'로 교체되기도 한다. 객체 높임은 선어말 어미 '-습-/-줍-/-습-'을 통해서 나타났으며, 상대 높임은 선어말 어미 '-이-/-잇-'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세 국어의 높임은 현대 국어에 비해 다양하게 실현되었다. 또한 높임의 뜻을 가진 어휘로 높임을 실현하기도 하였다.

보기 2

- ㉠ **훈** 菩薩이 ... 나라홀 아스 **맞디시고**
(한 보살이 ... 나라를 아우에게 맞기시고)
- ㉡ 太子 | 이제 어디 잇는뇨 ... 太子스 모미 傷ᄒ야 命이 머디 **아니히시이다**
(태자가 이제 어디 있는가? ... 태자의 몸이 상하여 명이 멸지 아니하십니다.)
- ㉢ **님금**하 ... 洛水(낙수)에 山行(산행)가 이셔 하나빌 **미드니잇간**
(임금이시여 ... 낙수에 사냥을 가 있으면서 할아버지를 뵈겠습니까?)
- ㉣ **진지** 오를 제 반드시
(진지 올릴 때 반드시)
- ㉤ 世尊하 내 堂中에 이셔 묻져 如來 **보습고**
(세존이시여, 내가 집안에서 먼저 여래 뵈고)

- ① 주체인 '菩薩(보살)'을 높이는 '-시-'가 쓰인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같다.
- ② 주체이며 청자인 '太子(태자)'를 높이기 위해 '-시-'와 '-이-'가 쓰인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다르다.
- ③ 청자인 '님금'을 높이기 위해 '-잇-'이 쓰인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다르다.
- ④ '밤' 대신 높임의 뜻을 지닌 어휘인 '진지'가 쓰인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같다.
- ⑤ 문장의 객체인 '如來(여래)'를 높이는 '-습-'이 쓰인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다르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의 사고와 생활양식이 다양해지고 새로운 사물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현실에서 그것을 지시하는 단어를 새말로만 채우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존의 단어가 의미의 영역을 넓혀 가면서 새로운 개념을 수용하여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관련된 의미를 지닐 수가 있게 된다. 이러한 단어를 다의어라고 하는데 단

[A] 어의 기본적인 핵심적인 의미인 '중심적 의미'와 이것에서 확장된 의미를 가진 '주변적 의미'로 이루어져 있다. 다의어의 중심적 의미는 주변적 의미에 비해 구조적으로 제약을 덜 받으며, 사용빈도가 높고 인지적으로 더 쉽고 단순하다. 그런데 주변적 의미

의 사용에서는 통사적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사다’, ‘팔다’를 살펴보기로 하자. ‘사다’, ‘팔다’는 구체적인 상품에 대한 상거래 행위의 의미를 중심적 의미로 나타내는 경우 반의 관계가 성립하지만, 주변적 의미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주변적 의미로는 ‘공로를 높이 사다’, ‘인심을 사다’, ‘양심을 팔다’, ‘한눈을 팔다’ 등의 쓰임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때는 가격표시나 장소, ‘잘(잘못)’, ‘(비)싸게’ 등 평가 부사어와 함께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다의어의 의미 확장 과정은 어떻게? 다의어의 의미 확장은 중심 의미의 용법을 다른 ‘국면’에 적용한 것으로 몇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사람 → 짐승 → 생물 → 무생물’로의 확장이 다. 여기서 확장의 기준은 ‘사람’이며, ‘사람’에게 사용된 단어를 이용하여 ‘짐승’, ‘생물’, ‘무생물’로 확장하게 된 것이다. 둘째, ㉡‘구체성 → 추상성’의 확장이다. 여기서 확장의 기준점은 ‘구체성’인데, 이를 바탕으로 ‘추상성’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셋째, ㉢‘공간 → 시간 → 추상’의 확장이다. 여기서 확장의 기준은 ‘공간’인데, 이는 우리가 가장 쉽게 자각할 수 있는 범주이며, 공간을 바탕으로 시간과 관련된 의미로 사용되다가, 단어의 속성이나 특성을 나타내는 추상의 범주로 확장된다. 넷째, ㉣‘물리적 → 사회적 → 심리적’ 확장이 다. 여기서 확장의 기준점은 가시적인 ‘물리적’ 성격인데,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성격’, ‘심리적 성격’으로 진행된다. 다섯째, ㉤‘일반성 → 비유성 → 관용성’의 확장이다. 이 경우 확장의 기준은 ‘일반성’이다. 언어는 일차적으로 글자 그대로의 용법이 중심적으로 쓰이며, 이차적으로 ‘비유성’을 획득하는데, 비유가 한층 굳어져서 ‘관용’ 표현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4. [A]를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다’, ‘팔다’가 다의어로 확장되는 이유는 적절한 단어의 수로 가능한 많은 개념을 표현하려 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 ② ‘수박을 오천 원에 사다’라는 문장에는 주변적 의미의 사용에서 평가 부사어를 활용할 수 없는 통사적 제약이 따른다.
- ③ ‘한눈을 만 원에 팔다’는 말은 주변적 의미가 가격 표시를 나타내는 말과 사용될 수 없는 제약을 보여준다.
- ④ ‘학용품을 사다’와 ‘학용품을 팔다’에서 ‘사다/팔다’는 중심적 의미로 사용되며 반의 관계가 성립된다.
- ⑤ ‘사다’, ‘팔다’의 중심적 의미가 주변적 의미보다는 단순하고 쉽게 사람들에게 인식된다고 할 수 있다.

5. ㉠~㉤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아이가 사과를 많이 먹었다. → 복숭아에 벌레가 많이 먹었다. → 종이가 습기를 먹어 눅눅해졌다.
- ② ㉡ : 어둠 속에서 가로등이 밝게 빛났다. → 그 소식을 듣고 얼굴이 밝아졌다. → 그는 사리에 밝은 행동만 한다.
- ③ ㉢ : 그는 방에 있다. → 그는 학교에 교장으로 있다. → 그의 눈동자는 내 가슴에 있다.
- ④ ㉣ :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 근대화의 바람이 불었다. → 그 아이가 바람이 들어 멋진 부린다.
- ⑤ ㉤ : 다리가 짧아 바닥에 닿지 않는다. → 그는 짧은 지식으로 나서기 좋아한다. → 우리 아이는 입이 짧아 많이 먹지 않는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산수 간(山水間) 바회 아래 뛰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늙들은 운는다 흐다마는
어리고 하암*의 뜻의는 내 분(分)인가 흐노라

<제1수>

보리밥 풋늬물을 알마초 머근 후(後)에
㉡바회 굶 몫긔의 슬긔지 노니노라
그 나른 너나른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라

<제2수>

잔 들고 혼자 안자 ㉢면 뵈홀 브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흐라
말슴도 우음도 아녀도 문내 도하흐노라

<제3수>

누고서 삼공(三公)도곤 닳다 흐더니 만승(萬乘)이 이만흐라
이제로 헤어든 소부(巢父) 허유(許由) | 낙뎡더라
아마도 남천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업세라

<제4수>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히 아락실샤
인간만스(人間萬事)를 흐 일도 아니 맞더
다만당 드토리 업슨 ㉣강산(江山)을 덕회라 흐시도다

<제5수>

㉤강산(江山)이 도타 혼들 내 분(分)으로 누얼느냐
님군 은혜(恩惠)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무리 갑고자 흐야도 희을 일이 업세라

<제6수>

- 윤선도,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나] 나는 산중에 살고 있는데, 대문 앞에 큰 계곡이 있다. 해마다 여름철이 되어 소나기가 한차례 지나갔다 하면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나, 노상 전기와 전기와 전포와 전고 소리를 듣게 되니, 마침내 컷병이 날 지경이 되었다.

나는 예전에 방문을 닫고 누워서 그 소리를 다른 비슷한 소리들에 견주어 보며 들은 적이 있었다. 솔숲에 바람이 불 때 나는 듯한 소리, 이는 계곡물 소리를 청아하게 들은 경우다. 산이 갈라지고 언덕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 이는 흥분해서 들은 경우다. 개구리 떼가 다투어 우는 듯한 소리, 이는 우쭐해서 들은 경우다. 만 개의 축(筑)이 연거푸 울리는 듯한 소리, 이는 분노하면서 들은 경우다. 순식간에 천둥 번개가 치는 듯한 소리, 이는 깜짝 놀라서 들은 경우다. 찻물이 때론 약하게 때론 세게 끓는 듯한 소리, 이는 운치 있게 들은 경우다. 거문고의 낮고 높은 가락이 잘 어우러져 나는 듯한 소리, 이는 슬퍼하면서 들은 경우다. 한지를 바른 창문이 바람에 우는 듯한 소리, 이는 혹시 누가 왔나 하면서 들은 경우다. 그런데 이는 모두 소리를 올바르게 들은 것이 아니요, 다만 마음속으로 가상(假想)한 바에 따라 귀가 소리를 지어낸 것일 뿐이다.

지금 나는 밤중에 한 줄기의 강을 아홉 번이나 건넜다. 이 강은 북쪽 국경 너머에서 흘러나와 만리장성을 돌파하고는, 유하(楡河)와 조하(潮河), 황화진천(黃花鎭川) 등 여러 강들과 합류하여, 밀운성(密雲城) 아래를 지나면 백하(白河)가 된다. 나는 어제 배로 백하

를 건넜는데, 백하가 바로 이 강의 하류였다.

내가 처음 요동(遼東)에 들어섰을 때 바야흐로 한여름이라 되어 별 속을 가는데, 갑자기 큰 강이 앞을 가로 막으면서 시뻘건 물결이 산더미같이 일어나 끝이 보이지 않았다. 이는 아마 천리 너머 먼 지역에 폭우가 내린 때문일 터이다.

강물을 건널 적에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보길래, 나는 그 사람들이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향해 속으로 기도를 드리나 보다 하였다. 그런데 한참 있다가 안 사실이지만, 강을 건너는 사람이 물을 살펴보면 물이 소용돌이치고 용솟음치니, 몸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하고 눈길은 물살을 따라 흘러가는 듯하여, 곧 어지럼증이 나서 물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 저 사람들이 고개를 쳐든 것은 하늘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요, 물을 외면하고 보지 않으려는 것일 뿐이었다. 또한 잠깐 새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인데 어느 겨를에 속으로 목숨을 빌었겠는가.

이와 같이 위태로운데도, 강물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요동 별판이 평평하고 드넓기 때문에 강물이 거세게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다.”라고 모두들 말하였다. 그러나 이는 강에 대해 잘 모르고 한 말이다. 요하(遼河)가 소리를 내지 않은 적이 없건만, 단지 밤중에 건너지 않아서 그랬을 뿐이다. 낮에는 물을 살펴볼 수 있는 까닭에 눈이 오로지 위태로운 데로 쏠리어, 한창 벌벌 떨면서 두 눈이 있음을 도리어 우환으로 여기는 터에, 또 어디서 소리가 들렸겠는가? 그런데 지금 나는 밤중에 강을 건너기에 눈으로 위태로움을 살펴볼지 못하니, 위태로움이 오로지 듣는 데로 쏠리어 귀로 인해 한창 벌벌 떨면서 걱정을 금할 수 없었다.

②나는 마침내 이제 도(道)를 깨달았도다! 마음을 차분히 다스린 사람에게는 귀와 눈이 누를 끼치지 못하지만, 제 귀와 눈만 믿는 사람에게는 보고 듣는 것이 자세하면 할수록 병폐가 되는 법이다.

방금 내 마부가 말에게 발을 밟았으므로, 뒤따라오는 수레에 그를 태웠다. 그리고 나서 말의 글레를 풀어 주고 말을 강물에 뚱뚱하게 한 채로, 두 무릎을 바짝 오그리고 발은 모두어 말안장 위에 앉았다. 한번 추락 했다 하면 바로 강이다. 나는 강을 대지처럼 여기고, 강을 내 옷처럼 여기고, 강을 내 몸처럼 여기고, 강을 내 성정(性情)처럼 여기었다. 그리하여 마음속으로 한번 추락할 것을 각오하자, 나의 귓속에서 마침내 강물 소리가 없어지고 말았다. 그리고 무려 아홉 번이나 강을 건너는 태도 아무런 걱정이 없어, 마침 안석 위에 앉거나 누워서 지내는 듯하였다.

- 박지원, <일야구도하기>

6.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가 알게 된 자연의 이치를 생활 속에 적용하려 하고 있다.
- ② 자신과 다른 사람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 ③ 주어진 삶에 순응하며 분수를 지키려는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자신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일상에서 실천하고자 한다.
- ⑤ 부정적인 현실을 초월하여 이상을 지향하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7. [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설의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 내면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비교하여 내면의 갈등을 표현하고 있다.
- ③ 구체적인 소재를 부각하여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인격화된 존재로 대상을 표현하여 자신과 일체감을 보여주고 있다.

군.

- ⑤ 다른 사람의 말이나 고사를 인용하여 고조되는 감흥을 나타내고 있다.

8. <보기>를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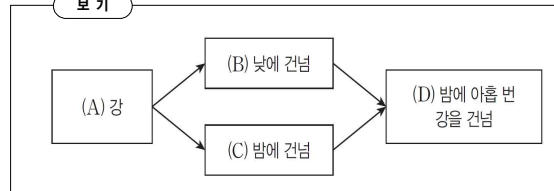
보기

조선 시대의 사대부들은 자연에서 안식을 찾고자 한 동시에 자연을 즐겨 노래했다. 그들 자연은 현실의 어지러움과 대비되는 탈속적 공간으로 풍류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소박한 생활을 즐기는 구체적인 삶의 장소이기도 했다. 따라서 그들은 자연의 일부로 살아가며 자연과 교감을 나누고 자연으로부터 위안과 만족을 얻고자 하였다. 아울러 사대부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그 속에 내재된 의미를 추구하여 교훈을 얻으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으며 출사의 때를 기다리며 학문을 닦고 인격을 수양하는 공간으로 삼기도 하였다.

- ① ‘뉘집을 짓’는다는 사실로 보아 ㉠은 소박함이 드러나는 구체적 삶의 공간이다.
- ② ‘부를 줄이 이시랴’라는 심리로 보아 ㉡은 위안과 만족을 주는 대상이다.
- ③ ‘몬내 도하호노라’라는 태도로 보아 ㉢은 화자와 교감을 나누는 존재이다.
- ④ ‘드토리 업슨’이란 내용으로 보아 ㉣은 현실과 대비되는 탈속적 공간이다.
- ⑤ ‘님군 은혜’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은 출사의 때를 기다리며 수양을 하는 공간이다.

9. <보기>와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① (A)는 (B)의 경우나 (C)의 경우나 실체는 동일한 상태에 있다.
- ② (B)에서 강물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눈에 정신이 팔렸기 때문이다.
- ③ (C)에서는 눈 대신에 귀가 두려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④ ㉣은 (B)와 (C)에 나타나는 태도의 긍정적 측면을 종합한 결과이다.
- ⑤ ㉣의 결과 (D)에서 안석 위에서 지내는 듯한 평온함을 느끼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빛은 파동인가, 입자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기나긴 논쟁이 이어져 왔다. 빛은 직진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뉴턴과 같은 과학자들은 빛이 입자라고 주장했으나, 17세기에 하위헌스 등에 의해 빛이 굴절하거나 간섭하는 성질이 ㉠있다는 사실이 실험으로 확인되면서 빛은 파동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데 19세기 말, 파동설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바로 광전 효과라는 현상이다.

광전 효과란 어떤 금속에 빛이 닿으면 안에 있는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을 말한다. 물질 속의 전자는 원자핵의 인력에 붙잡혀 보통은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는다. 에너지를 조금 받더라도 다시 원래 위치로 **⑤돌아가기** 때문이다. 이때 전자가 금속을 빠져나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일함수라고 한다. 자외선을 받으면 전자는 속박을 뿌리치고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광전 효과이다.

광전 효과가 에너지의 크기와 관련이 있다면, 어떤 빛을 받아도 광전 효과가 일어나야 한다. 파동의 에너지는 진폭에 비례하기 때문에 진폭이 커지면, 즉 빛의 세기가 강해지면 빛의 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④하지만 아무리 강한 적외선을 비추어도 광전 효과는 일어나지 않는다. 반면, 자외선은 아무리 약해도 광전 효과가 발생한다.** 빛을 파동이라고만 생각하는 고전적 입장과 이 광전 효과 사이에 생기는 모순 때문에 19세기 말의 물리학자들은 큰 혼란을 겪었다.

이러한 혼란에 대한 답을 제시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다. 아인슈타인은 '진동수 f인 빛은 에너지 hf를 가진 빛의 입자이고, 빛의 세기는 그 입자의 양에 비례한다.'고 생각했다. 이 빛의 입자가 광양자이고, 이러한 가설이 아인슈타인의 광양자설이다. 아무리 강한 적외선을 비추어도 전자는 금속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는 반면, 자외선은 약하게 받아도 전자가 튀어나온다. 이 사실은 광양자설로는 어렵지 않게 설명할 수 있다. 하나의 광양자는 한 원자에 전부 흡수되거나, 전혀 흡수되지 않는 경우만 있으므로 입자 하나, 즉 광양자 하나의 에너지가 일함수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전자가 받는 광양자 에너지 hf가 일함수(W)를 넘으면 전자는 금속에서 해방되기 때문이다.

광전 효과를 간단히 설명해 주는 광양자설로 인해 빛이 이중성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는 양자역학으로 발전하였다. 광양자설에서는 빛이 입자처럼 불연속적으로 에너지를 전달한다고 보았는데, 양자역학에 따르면 에너지는 불연속적이며 하나의 물리량이 불연속적일 때 이를 양자화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흔하게 쓰이는 LED(발광다이오드)가 바로 광전 효과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고체를 엄청나게 확대해서 **⑥분다면**, 확대된 고체 내부는 여러 원자들이 서로 결합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각 원자들만 따로 존재하면 그 에너지는 특정한 값으로 양자화되지만, 주위의 여러 원자들이 서로 결합된 상태에서는 <그림>과 같이 위, 아래로 나누어진 띠 형태로 양자화된다.

<그림>에서 아래쪽은 '가전자 띠', 위쪽을 '전도 띠'라고 부르는데 불순물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반도체는 모든 전자들이 가전자 띠를 가득 메우고 있는 반면, 전도 띠는 거의 비워져 있다. 하지만 외부에서 빛을 가하거나 전기에너지를 공급하면 가전자 띠를 채우고 있던 전자가 전도 띠로 이동할 수 있다. 전도 띠에 올라간 전자는 반도체 결정 내부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어 이를 '자유전자'라고 한다. 전도 띠로 전자가 이동하면 가전자 띠에는 전자가 비워진 공간이 생기는데 이를 '양공'이라고 부른다. 양공은 원래 있던 전자가 빈 상태가 되어 양전하를 띄게 된다.

양공 주위로 자유전자가 지나가면 자유전자는 이 빈 공간을 다시 채울 수 있는데, 이를 자유전자와 양공의 재결합이라고 한다. 양자

역학 이론에 **①따르면** 재결합 과정에서 가전자 띠와 전도 띠 사이의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빛이 방출되고 이 빛을 이용하는 소자가 LED이다. 즉 LED는 외부에서 전기를 공급받아 자유전자와 양공을 꾸준히 재결합시키는 과정에서 빛을 만들어낸다. LED에서 방출되는 빛은 띠간격에너지에 해당하는 파장을 가진 빛이 방출되어 특정 색깔을 가진다.

LED 접합 다이오드는 빛을 꾸준히 발생시키기 위해 두 가지 반도체를 형성시켜 둔 전자소자이다. 자유전자가 많이 있는 반도체를 N형, 양공이 많은 반도체를 P형 반도체라고 한다. 이 둘을 이어 붙인 것이 PN접합 다이오드이다. 여기에 전기가 공급되면 N형 반도체에 많은 자유전자가 양공이 많은 P형 반도체로 이동하여 양공과 재결합하면서 빛이 발생하게 된다. P형 반도체나 N형 반도체나 모두 전도율이 좋지만, 이 둘 사이의 접합면은 그렇지 않다. 이 전도율이 **②떨어지는** 접합면을 공핍층(depletion zone)이라고 한다. 공핍층에는 양공이나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데, P형 반도체의 운반자인 양공과, N형 반도체의 운반자인 전자가 서로 끌어당겨서 재결합하면서 없어지기 때문이다.

[어휘풀이] 1) h : 플랑크 상수.

10.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7세기 이전에는 빛이 파동이라는 생각이 보편적이지 않았다.
- ② 하위헌스는 빛이 광양자라는 견해가 잘못된 것임을 입증하였다.
- ③ LED의 빛은 띠간격에너지에 따라서 다른 색깔을 가질 수 있다.
- ④ 불순물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반도체는 가전자 띠가 전자들로 메워져 있다.
- ⑤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에 비해 P형과 N형 반도체의 접합면은 전도율이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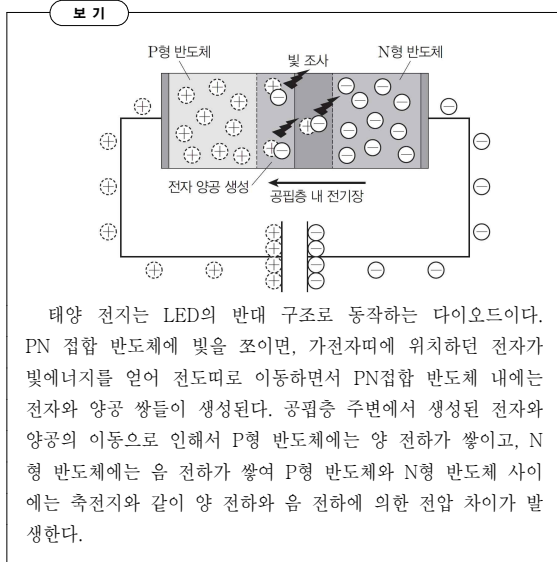
11. ㉠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① 적외선의 광양자는 플랑크 상수보다 작은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광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 ② 적외선은 자외선과 달리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 ③ 적외선은 광양자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광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자외선은 적외선보다 진동수가 크기 때문에 광전 효과가 나타난다.
- ⑤ 자외선은 일함수를 낮춰 주기 때문에 광전 효과가 나타난다.

12. 밑글의 '양자역학'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빛의 이중성은 양자역학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 ② 양자역학으로 인해 광전 효과가 발생하게 되었다.
- ③ 양자역학에 의하면 에너지는 연속적인 값을 갖는 속성이 있다.
- ④ 빛이 입자라고 주장한 뉴턴의 이론은 양자역학의 토대가 되었다.
- ⑤ 양자역학에 의하면 각 원자들이 따로 존재하면 가전자 띠와 전도 띠로 나뉘어 양자화된다.

13.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태양 전지는 LED의 반대 구조로 동작하는 다이오드이다. PN 접합 반도체에 빛을 쬐이면, 가전자대에 위치하던 전자가 빛에너지를 얻어 전도대로 이동하면서 PN접합 반도체 내에는 전자와 양공 쌍들이 생성된다. 공핍층 주변에서 생성된 전자와 양공의 이동으로 인해서 P형 반도체에는 양 전하가 쌓이고, N형 반도체에는 음 전하가 쌓여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사이에는 축전지와 같이 양 전하와 음 전하에 의한 전압 차이가 발생한다.

- ① PN접합 다이오드와 달리 태양 전지에서는 전압의 차이가 발생되겠군.
- ② PN접합 다이오드와 달리 태양 전지는 빛을 흡수하여 전기를 발생시키겠군.
- ③ PN접합 다이오드와 태양 전지에는 모두 양공이나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구역이 있다.
- ④ PN접합 다이오드와 달리 태양 전지에서는 전자가 P형 반도체 방향으로 이동하는군.
- ⑤ PN접합 다이오드와 달리 태양 전지는 특정 진동수 이상의 빛이 닿으면 다이오드에서 양공과 전자가 발생되겠군.

14. 문맥상 ㉠~㉥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 : 그가 외국에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 ② ㉡ :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발원 기회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 ③ ㉢ : 수상한 사람을 본다면 바로 신고 바랍니다.
- ④ ㉣ : 선생님의 권유를 따르면 적어도 후회할 일은 없을 것이다.
- ⑤ ㉤ : 소매의 단추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불길한 생각을 하였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드디어 함께 개령동이라는 곳에 다다랐는데 축대가 들판을 뒤덮었고 가시덤불이 하늘을 찌를 듯 무성하였다. 그 가운데 집 한 채가 있었는데 작지만 매우 정갈하였다.

여인은 양생을 집 안으로 이끌었다. 방 안에는 이부자리와 휘장이 잘 정돈되어 있었는데 어젯밤 베풀었던 것과 비슷했다.

양생은 그곳에서 사흘을 머물렀다.

그곳에서 누린 즐거움은 인간 세상의 것과 마찬가지로였다. 그러나 시녀는 아름다우면서도 교활하지 않고, 그릇은 깨끗하면서도 꾸밈이 없는 것이 아무래도 인간 세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얼핏 스쳐 갔다. 하지만 양생은 여인과 정이 깊이 들어서 더 이상 생각하거나 염려하지 않았다.

여인이 양생에게 말했다.

“이곳의 사흘은 인간 세상의 삼 년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낭군님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생업을 돌보셔야지요.”

드디어 이별의 잔치를 열고는 헤어지게 되었다. 양생은 서글퍼하며 말했다.

“어찌 이별이 이다지도 빠르단 말이요?”

여인이 대답하였다.

“언젠가 다시 만나 평생의 소원을 다 풀게 될 거예요. 오늘 이렇게 누추한 곳에 오시게 된 것도 반드시 지난날의 인연이 있어서 일 것입니다. 제 이웃 친지들을 만나 보시는 것이 어머신지요?”

양생은 그러마고 대답했다.

여인은 곧 시녀에게 사방의 이웃들을 모셔 오라고 시켰다. 그중 첫 번째는 정 씨라 하고, 두 번째는 오 씨라 하고, 세 번째는 김 씨라 하고, 네 번째는 유 씨라 하는데 모두 문벌이 높은 귀족 집의 따님들로서 여인과는 한마을에 사는 친척이면서 아직 시집가지 않은 처녀들이었다.

모두 성품이 온화하고, 풍류와 운치가 범상치 않았다. 게다가 총명하고 문자를 알아 능히 시부(詩賦)를 지을 줄 알았다. 여인들은 모두 칠언절구 네 편씩을 지어 양생에게 이별의 선물로 주었다.

[중략 줄거리] 양생은 여인에게 신표로 은그릇을 받고 보련사로 가는 길목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한다. 약속대로 양생은 은그릇을 들고 보련사 길목에서 있다가 죽은 딸의 제사를 치르러 가던 여인의 부모를 만나게 된다.

양생은 우두커니 서서 기다렸다. 약속한 시간이 되자 과연 어떤 여인이 계집종을 거느리고 나긋나긋한 자태로 걸어오는데 바로 그 여인이었다. 양생과 여인은 서로 기뻐하면서 손을 잡고 보련사로 향하였다.

여인은 절 문에 들어서자 부처님께 예를 올리더니 흰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여인의 친척들과 절의 승려들은 모두 그것을 믿지 않았다. 오직 양생만이 혼자 볼 수 있을 뿐이었다.

여인이 양생에게 말하였다.

“함께 차와 음식이나 드시지요.”

양생은 그 말을 여인의 부모에게 고하였다. 여인의 부모는 시험해 보고자 양생에게 함께 식사를 하라고 시켰다. 그랬더니 오직 ㉠ 수저를 놀리는 소리만 들렸는데 마치 산 사람이 식사하는 소리 같았다.

그제야 여인의 부모가 놀라 탄식하면서 양생에게 휘장 곁에서 같이 잠자기를 권하였다. 한밤중에 ㉡ 말소리가 낭랑히 들렸는데 사람들이 자세히 엿들으려 하면 갑자기 그 말이 끊어졌다.

여인이 양생에게 말하였다.

“제가 법도를 어겼다는 것은 저 스스로 잘 알고 있어요. 어려서 『시경』과 『서경』을 읽었으므로 예의가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알지요. 『시경』의 「견상(囊裳)」¹⁾이 얼마나 부끄럽고, 「상서(相鼠)」²⁾가 얼마나 얼굴 붉힐 만한 것인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숙덤불 우거진 속에 거처하며 들판에 버려져 있다 보니 사랑하는 마음이 한번 일어나자 끝내 견장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절에 가서 복을 빌고 부처님 앞에서 향을 사르며 일생 운수가 박복함을 혼자 ㉢ 탄식하다가 뜻밖에도 삼세의 인연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래서 머리에 가시나무 비너를 꽂은 가난한 살림이라도 낭군의 야박으로서 백 년 동안 높은 절개를 바치고, 술 을 빚고

웃을 지으며 한평생 지어미로서의 도리를 닦으려 했던 것이랍니다. 하지만 한스럽게도 업보는 피할 수가 없어서 저승길로 떠나야만 하게 되었어요. 즐거움을 다 누리지도 못했는데 슬픈 이별이 갑작스레 닥쳐왔군요.

이제 제 발걸음이 병풍 안으로 들어가면 신녀 아향이 수레를 둘릴 것이고, 구름과 비는 양대에서 개고, 까치와 까마귀는 은하수에서 흩어질 거예요. 이제 한번 헤어지면 훗날 다시 만나기를 기약하기 어렵겠지요. 작별을 당하고 보니 정신이 아득하기만 해서 무어라 말할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이윽고 여인의 영혼을 전송하자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영혼이 문밖에 이르자 다만 은은하게 다음과 같은 ㉠소리만이 들려왔다.

저승길이 기한 있어
슬프게도 이별합니다.
우리 임께 바라오니
저를 멀리 마음소서.
애달과라, 우리 부모님
나를 짝지어 주지 못하셨네.
아득한 저승에서
마음에 한 맺히리.

소리가 차츰 잦아들면서 ㉡우는 소리와 분별할 수 없게 되었다. 여인의 부모는 이제야 그동안의 일이 사실임을 깨닫고 다시는 의심하지 않았다. 양생 또한 그 여인이 귀신이었음을 알고는 슬픔이 더해져서 여인의 부모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흐느꼈다.

여인의 부모가 양생에게 말하였다.
“은그릇은 자네가 말아서 쓰고 싶은 대로 쓰게나. 딸아이 몫으로 발 몇 마지기과 노비 몇 명이 있으니 자네는 이것을 신포로 삼아 내 딸을 잊지 말아 주게.”

다음 날 양생은 고기와 술을 마련하여 전날의 자취를 더듬어 찾아갔다. 그랬더니 과연 그곳은 시체를 임시로 묻어 둔 곳이었다. 양생은 제물을 차려 놓고 슬피 울면서, 그 앞에서 종이돈을 불사르고 장례를 치러 주었다.

- 김시습, <만복사저포기>

[어휘 풀이] 1) 건상(義囊) : 『시경』에 실린 시편으로 음탕한 여인이 남자를 유혹하는 시이다. 2) 상서(相鼠) : 『시경』에 실린 시편으로 예의가 없는 것을 풍자한 시이다.

15.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화와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삽입시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③ 인물들의 대립 구도를 부각하여 서사적인 흥미를 높이고 있다.
- ④ 상황에 대한 요약적 진술을 통해 사건의 정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⑤ 문헌에 대한 언급을 통해 등장인물의 지적 수준을 드러내고 있다

16. 뒷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양생은 여인과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 인연을 맺을 수 있다고 믿었다.
- ② 여인의 부모는 여인의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야 양생과 여인의 하룻밤을 허락하였다.
- ③ 양생은 개령동에 가기 전에 이미 여인이 이승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④ 여인은 부모에 대한 원망이 풀리지 않아서 부모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 ⑤ 여인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사랑에 더 큰 가치를 두었다.

17. ㉠~㉢에 드러나는 소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여인의 부모가 여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② ㉡ : 여인이 양생에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매개로 작용한다.
- ③ ㉢ : 여인이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원통해 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 : 여인이 이승의 사람들에게 이별 상황에 대한 한스러운 마음을 전하고 있다.
- ⑤ ㉤ : 사랑을 성취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여인의 안타까움을 담고 있다.

18. <보기>를 참고하여 뒷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만복사저포기」는 기이하고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승에 있는 사람과 저승의 영혼의 ‘만남 - 사랑 - 이별’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등장인물이 생사를 초월하여 사랑을 추구하는 애정 소설의 성격을 지닌다. 또한 인간의 생사가 수레바퀴가 끊임없이 구르는 것과 같이 거듭된다는 설정은 불교적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만복사저포기」는 전기성의 측면에서 중국의 전기 소설의 영향을 받았으나 비극적 결말로 이야기가 끝난다는 점에서는 차이점을 보인다.

- ① 휘장 안으로 들어간 여인을 ‘오직 양생만이 혼자 볼 수 있을 뿐’ 이 있다는 서술에서 이 작품의 기이하고 비현실적인 요소를 확인할 수 있겠군.
- ② ‘업보는 피할 수가 없어서 저승길로 떠나야만’ 한다는 여인의 말에서 ‘만남 - 사랑 - 이별’ 중 이별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③ ‘썩답불 우거진 속에 거처하며 들관에 버려진 상황에서도 부처와의 약속을 믿는 여인의 모습에서 생사를 초월하는 애정 소설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④ ‘뚝밖에도 삼세의 인연을 만나게 되었’다는 여인의 말에서 불교적 윤회 사상이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⑤ ‘여인의 부모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흐느끼는 양생의 모습에서 중심 사건이 비극적 결말로 끝맺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는 당신의 웃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심¹⁾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습니다.
짓지 아니한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놓는 것뿐입니다.
그 주머니는 나의 손때가 ㉡ 많이 묻었습니다.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로 알지마는
그러한 비밀은 나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주머니에 수를 놓으려면
나의 마음은 수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없
습니다.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
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 한용운, <수(繡)의 비밀>

[어휘 풀이] 1) 심의 : 예전에 신분이 높은 선비들이 입던 옷옷.

[나]

한겨울 못 잇을 사람하고

한계령쯤을 넘다가

뜻밖의 폭설을 만나고 싶다.

뉴스는 다투어 수십 년만의 풍요를 알리고

자동차들은 뒤뚱거리며

제 구멍들을 찾아가느라 범벅이지만

한계령의 한계에 못이긴 척 ㉠기꺼이 묶였으면

오오 눈부신 고립

사방이 ㉡온통 흰 것뿐인 동화의 나라에

발이 아니라 운명이 묶였으면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면 풍요는

조금씩 공포로 변하고, 현실은

두려움의 색채를 드리우기 시작하지만

헬리콥터가 나타났을 때에도

나는 결코 손을 흔들지는 않으리

헬리콥터가 눈 속에 갇힌 야생조들과

짐승들을 위해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젊은 심장을 향해

까야만 포탄을 뿌려대던 헬리콥터들이

고라니나 꿩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자비롭게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나는 결코 옷자락을 보이지 않으리

아름다운 한계령에 기꺼이 묶여

난생 처음 짧은 축복에 몸 둘 바를 모르리

- 문정희, <한계령을 위한 연가>

19.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경어체를 활용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 ② [나]는 색채 이미지를 활용해 대상이 지닌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 ③ [나]와 달리 [가]는 수미상관의 구성을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④ [가]와 달리 [나]는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해 화자의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화자를 작품에 직접 노출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20. <보기>를 활용해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가]와 [나]는 역설적 발상을 활용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는 공통점을 살피볼 수 있다. [가]는 대상의 부채를 인정하면서도 이별의 상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역설적 발상을 통해 '당신'에 대한 화자의 기다림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나]는 특정

한 공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역설적 발상을 통해 '못 잇을 사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① [가]에서 '짓지 아니한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놓는 것뿐'이라는 것은 옷을 입을 '당신'이 부채한 상황을 암시적으로 드러낸 것이군.
- ② [가]의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에는 '당신'과 이별한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화자의 심리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군.
- ③ [가]의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는 수를 놓으며 '당신'을 기다리는 일이 이별을 견디는 힘이 되고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군.
- ④ [나]의 '오오 눈부신 고립'은 한계령에 묶여 '못 잇을 사람'과 운명을 함께 하고 싶은 소망을 나타낸 역설적 표현에 해당하군.
- ⑤ [나]의 '나는 결코 손을 흔들지는 않으리'는 '못 잇을 사람'을 데려간 '헬리콥터'에 대한 반감을 역설적 발상을 통해 드러낸 것이군.

21.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심의', '도포', '자리옷' 등을 모두 지어내었음을 통해 화자의 소박한 생활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② ㉡ : 옷을 '짓다가 놓아두'는 행위를 반복한 결과 생긴 '손때'를 통해 시간의 오랜 흐름이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③ ㉢ : 다른 사람은 한계령에서 빠져나가도 화자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한계령에 남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④ ㉣ : 한계령이 오직 눈으로만 쌓인 상황을 나타내면서 고립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 : 한계령의 '고라니'나 '꿩'들에게 빠짐없이 양식이 돌아가 생존에 도움이 됨을 강조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 1) ㉠ ㉡ ㉢의 '부엌만'은 뒤에 오는 '모'의 영향으로 '쿠'이 '오'이 되었고, '밥 내오다'는 뒤에 오는 'ㄴ'의 영향으로 'ㅂ'이 '모'이 되었다. ㉣의 '꽃밭은 앞에 오는 'ㄷ'의 영향으로 뒤에 오는 'ㅂ'이 'ㅃ'이 되었고, '밖그릇은 앞에 오는 'ㅂ'의 영향으로 뒤에 오는 'ㄱ'이 'ㄲ'이 되었다. ㉤의 '줄넘기와 '볼놀이'는 모두 앞에 오는 'ㄹ'의 영향으로 뒤에 오는 'ㄴ'이 'ㄹ'이 되었다. ㉥ ㉦ ㉧은 모두 파열음이 비음으로 되어 조음 방법이 달라진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 ㉪은 새로운 음운이 덧붙은 것이 아니라,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교체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의 '밝'은 '은' 다음에 '단순화'에 의해 'ㄹ'이 탈락한 후 'ㅂ'이 뒤에 오는 'ㄴ'의 영향으로 'ㅂ'에서 'ㄹ'로 바뀌었다. 이는 조음 방법이 달라진 것에 해당하지만, '훅빨래'는 'ㄹ'이 탈락했을 뿐 조음 방법이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 음운이 만나 하나의 음운으로 주는 '축약'은 ㉱~㉳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㊀ ㊁ ㊂ ㊃ ㊄ ㊅ ㊆ ㊇ ㊈ 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㐀 㐁 㐂 㐃 㐄 㐅 㐆 㐇 㐈 㐉 㐊 㐋 㐌 㐍 㐎 㐏 㐐 㐑 㐒 㐓 㐔 㐕 㐖 㐗 㐘 㐙 㐚 㐛 㐜 㐝 㐞 㐟 㐠 㐡 㐢 㐣 㐤 㐥 㐦 㐧 㐨 㐩 㐪 㐫 㐬 㐭 㐮 㐯 㐰 㐱 㐲 㐳 㐴 㐵 㐶 㐷 㐸 㐹 㐺 㐻 㐼 㐽 㐾 㐿 㑀 㑁 㑂 㑃 㑄 㑅 㑆 㑇 㑈 㑉 㑊 㑋 㑌 㑍 㑎 㑏 㑐 㑑 㑒 㑓 㑔 㑕 㑖 㑗 㑘 㑙 㑚 㑛 㑜 㑝 㑞 㑟 㑠 㑡 㑢 㑣 㑤 㑥 㑦 㑧 㑨 㑩 㑪 㑫 㑬 㑭 㑮 㑯 㑰 㑱 㑲 㑳 㑴 㑵 㑶 㑷 㑸 㑹 㑺 㑻 㑼 㑽 㑾 㑿 㒀 㒁 㒂 㒃 㒄 㒅 㒆 㒇 㒈 㒉 㒊 㒋 㒌 㒍 㒎 㒏 㒐 㒑 㒒 㒓 㒔 㒕 㒖 㒗 㒘 㒙 㒚 㒛 㒜 㒝 㒞 㒟 㒠 㒡 㒢 㒣 㒤 㒥 㒦 㒧 㒨 㒩 㒪 㒫 㒬 㒭 㒮 㒯 㒰 㒱 㒲 㒳 㒴 㒵 㒶 㒷 㒸 㒹 㒺 㒻 㒼 㒽 㒾 㒿 㓀 㓁 㓂 㓃 㓄 㓅 㓆 㓇 㓈 㓉 㓊 㓋 㓌 㓍 㓎 㓏 㓐 㓑 㓒 㓓 㓔 㓕 㓖 㓗 㓘 㓙 㓚 㓛 㓜 㓝 㓞 㓟 㓠 㓡 㓢 㓣 㓤 㓥 㓦 㓧 㓨 㓩 㓪 㓫 㓬 㓭 㓮 㓯 㓰 㓱 㓲 㓳 㓴 㓵 㓶 㓷 㓸 㓹 㓺 㓻 㓼 㓽 㓾 㓿 㔀 㔁 㔂 㔃 㔄 㔅 㔆 㔇 㔈 㔉 㔊 㔋 㔌 㔍 㔎 㔏 㔐 㔑 㔒 㔓 㔔 㔕 㔖 㔗 㔘 㔙 㔚 㔛 㔜 㔝 㔞 㔟 㔠 㔡 㔢 㔣 㔤 㔥 㔦 㔧 㔨 㔩 㔪 㔫 㔬 㔭 㔮 㔯 㔰 㔱 㔲 㔳 㔴 㔵 㔶 㔷 㔸 㔹 㔺 㔻 㔼 㔽 㔾 㔿 㕀 㕁 㕂 㕃 㕄 㕅 㕆 㕇 㕈 㕉 㕊 㕋 㕌 㕍 㕎 㕏 㕐 㕑 㕒 㕓 㕔 㕕 㕖 㕗 㕘 㕙 㕚 㕛 㕜 㕝 㕞 㕟 㕠 㕡 㕢 㕣 㕤 㕥 㕦 㕧 㕨 㕩 㕪 㕫 㕬 㕭 㕮 㕯 㕰 㕱 㕲 㕳 㕴 㕵 㕶 㕷 㕸 㕹 㕺 㕻 㕼 㕽 㕾 㕿 㖀 㖁 㖂 㖃 㖄 㖅 㖆 㖇 㖈 㖉 㖊 㖋 㖌 㖍 㖎 㖏 㖐 㖑 㖒 㖓 㖔 㖕 㖖 㖗 㖘 㖙 㖚 㖛 㖜 㖝 㖞 㖟 㖠 㖡 㖢 㖣 㖤 㖥 㖦 㖧 㖨 㖩 㖪 㖫 㖬 㖭 㖮 㖯 㖰 㖱 㖲 㖳 㖴 㖵 㖶 㖷 㖸 㖹 㖺 㖻 㖼 㖽 㖾 㖿 㗀 㗁 㗂 㗃 㗄 㗅 㗆 㗇 㗈 㗉 㗊 㗋 㗌 㗍 㗎 㗏 㗐 㗑 㗒 㗓 㗔 㗕 㗖 㗗 㗘 㗙 㗚 㗛 㗜 㗝 㗞 㗟 㗠 㗡 㗢 㗣 㗤 㗥 㗦 㗧 㗨 㗩 㗪 㗫 㗬 㗭 㗮 㗯 㗰 㗱 㗲 㗳 㗴 㗵 㗶 㗷 㗸 㗹 㗺 㗻 㗼 㗽 㗾 㗿 㘀 㘁 㘂 㘃 㘄 㘅 㘆 㘇 㘈 㘉 㘊 㘋 㘌 㘍 㘎 㘏 㘐 㘑 㘒 㘓 㘔 㘕 㘖 㘗 㘘 㘙 㘚 㘛 㘜 㘝 㘞 㘟 㘠 㘡 㘢 㘣 㘤 㘥 㘦 㘧 㘨 㘩 㘪 㘫 㘬 㘭 㘮 㘯 㘰 㘱 㘲 㘳 㘴 㘵 㘶 㘷 㘸 㘹 㘺 㘻 㘼 㘽 㘾 㘿 㙀 㙁 㙂 㙃 㙄 㙅 㙆 㙇 㙈 㙉 㙊 㙋 㙌 㙍 㙎 㙏 㙐 㙑 㙒 㙓 㙔 㙕 㙖 㙗 㙘 㙙 㙚 㙛 㙜 㙝 㙞 㙟 㙠 㙡 㙢 㙣 㙤 㙥 㙦 㙧 㙨 㙩 㙪 㙫 㙬 㙭 㙮 㙯 㙰 㙱 㙲 㙳 㙴 㙵 㙶 㙷 㙸 㙹 㙺 㙻 㙼 㙽 㙾 㙿 㚀 㚁 㚂 㚃 㚄 㚅 㚆 㚇 㚈 㚉 㚊 㚋 㚌 㚍 㚎 㚏 㚐 㚑 㚒 㚓 㚔 㚕 㚖 㚗 㚘 㚙 㚚 㚛 㚜 㚝 㚞 㚟 㚠 㚡 㚢 㚣 㚤 㚥 㚦 㚧 㚨 㚩 㚪 㚫 㚬 㚭 㚮 㚯 㚰 㚱 㚲 㚳 㚴 㚵 㚶 㚷 㚸 㚹 㚺 㚻 㚼 㚽 㚾 㚿 㜀 㜁 㜂 㜃 㜄 㜅 㜆 㜇 㜈 㜉 㜊 㜋 㜌 㜍 㜎 㜏 㜐 㜑 㜒 㜓 㜔 㜕 㜖 㜗 㜘 㜙 㜚 㜛 㜜 㜝 㜞 㜟 㜠 㜡 㜢 㜣 㜤 㜥 㜦 㜧 㜨 㜩 㜪 㜫 㜬 㜭 㜮 㜯 㜰 㜱 㜲 㜳 㜴 㜵 㜶 㜷 㜸 㜹 㜺 㜻 㜼 㜽 㜾 㜿 㝀 㝁 㝂 㝃 㝄 㝅 㝆 㝇 㝈 㝉 㝊 㝋 㝌 㝍 㝎 㝏 㝐 㝑 㝒 㝓 㝔 㝕 㝖 㝗 㝘 㝙 㝚 㝛 㝜 㝝 㝞 㝟 㝠 㝡 㝢 㝣 㝤 㝥 㝦 㝧 㝨 㝩 㝪 㝫 㝬 㝭 㝮 㝯 㝰 㝱 㝲 㝳 㝴 㝵 㝶 㝷 㝸 㝹 㝺 㝻 㝼 㝽 㝾 㝿 㞀 㞁 㞂 㞃 㞄 㞅 㞆 㞇 㞈 㞉 㞊 㞋 㞌 㞍 㞎 㞏 㞐 㞑 㞒 㞓 㞔 㞕 㞖 㞗 㞘 㞙 㞚 㞛 㞜 㞝 㞞 㞟 㞠 㞡 㞢 㞣 㞤 㞥 㞦 㞧 㞨 㞩 㞪 㞫 㞬 㞭 㞮 㞯 㞰 㞱 㞲 㞳 㞴 㞵 㞶 㞷 㞸 㞹 㞺 㞻 㞼 㞽 㞾 㞿 㟀 㟁 㟂 㟃 㟄 㟅 㟆 㟇 㟈 㟉 㟊 㟋 㟌 㟍 㟎 㟏 㟐 㟑 㟒 㟓 㟔 㟕 㟖 㟗 㟘 㟙 㟚 㟛 㟜 㟝 㟞 㟟 㟠 㟡 㟢 㟣 㟤 㟥 㟦 㟧 㟨 㟩 㟪 㟫 㟬 㟭 㟮 㟯 㟰 㟱 㟲 㟳 㟴 㟵 㟶 㟷 㟸 㟹 㟺 㟻 㟼 㟽 㟾 㟿 㠀 㠁 㠂 㠃 㠄 㠅 㠆 㠇 㠈 㠉 㠊 㠋 㠌 㠍 㠎 㠏 㠐 㠑 㠒 㠓 㠔 㠕 㠖 㠗 㠘 㠙 㠚 㠛 㠜 㠝 㠞 㠟 㠠 㠡 㠢 㠣 㠤 㠥 㠦 㠧 㠨 㠩 㠪 㠫 㠬 㠭 㠮 㠯 㠰 㠱 㠲 㠳 㠴 㠵 㠶 㠷 㠸 㠹 㠺 㠻 㠼 㠽 㠾 㠿 㡀 㡁 㡂 㡃 㡄 㡅 㡆 㡇 㡈 㡉 㡊 㡋 㡌 㡍 㡎 㡏 㡐 㡑 㡒 㡓 㡔 㡕 㡖 㡗 㡘 㡙 㡚 㡛 㡜 㡝 㡞 㡟 㡠 㡡 㡢 㡣 㡤 㡥 㡦 㡧 㡨 㡩 㡪 㡫 㡬 㡭 㡮 㡯 㡰 㡱 㡲 㡳 㡴 㡵 㡶 㡷 㡸 㡹 㡺 㡻 㡼 㡽 㡾 㡿 㢀 㢁 㢂 㢃 㢄 㢅 㢆 㢇 㢈 㢉 㢊 㢋 㢌 㢍 㢎 㢏 㢐 㢑 㢒 㢓 㢔 㢕 㢖 㢗 㢘 㢙 㢚 㢛 㢜 㢝 㢞 㢟 㢠 㢡 㢢 㢣 㢤 㢥 㢦 㢧 㢨 㢩 㢪 㢫 㢬 㢭 㢮 㢯 㢰 㢱 㢲 㢳 㢴 㢵 㢶 㢷 㢸 㢹 㢺 㢻 㢼 㢽 㢾 㢿 㣀 㣁 㣂 㣃 㣄 㣅 㣆 㣇 㣈 㣉 㣊 㣋 㣌 㣍 㣎 㣏 㣐 㣑 㣒 㣓 㣔 㣕 㣖 㣗 㣘 㣙 㣚 㣛 㣜 㣝 㣞 㣟 㣠 㣡 㣢 㣣 㣤 㣥 㣦 㣧 㣨 㣩 㣪 㣫 㣬 㣭 㣮 㣯 㣰 㣱 㣲 㣳 㣴 㣵 㣶 㣷 㣸 㣹 㣺 㣻 㣼 㣽 㣾 㣿 㤀 㤁 㤂 㤃 㤄 㤅 㤆 㤇 㤈 㤉 㤊 㤋 㤌 㤍 㤎 㤏 㤐 㤑 㤒 㤓 㤔 㤕 㤖 㤗 㤘 㤙 㤚 㤛 㤜 㤝 㤞 㤟 㤠 㤡 㤢 㤣 㤤 㤥 㤦 㤧 㤨 㤩 㤪 㤫 㤬 㤭 㤮 㤯 㤰 㤱 㤲 㤳 㤴 㤵 㤶 㤷 㤸 㤹 㤺 㤻 㤼 㤽 㤾 㤿 㥀 㥁 㥂 㥃 㥄 㥅 㥆 㥇 㥈 㥉 㥊 㥋 㥌 㥍 㥎 㥏 㥐 㥑 㥒 㥓 㥔 㥕 㥖 㥗 㥘 㥙 㥚 㥛 㥜 㥝 㥞 㥟 㥠 㥡 㥢 㥣 㥤 㥥 㥦 㥧 㥨 㥩 㥪 㥫 㥬 㥭 㥮 㥯 㥰 㥱 㥲 㥳 㥴 㥵 㥶 㥷 㥸 㥹 㥺 㥻 㥼 㥽 㥾 㥿 㦀 㦁 㦂 㦃 㦄 㦅 㦆 㦇 㦈 㦉 㦊 㦋 㦌 㦍 㦎 㦏 㦐 㦑 㦒 㦓 㦔 㦕 㦖 㦗 㦘 㦙 㦚 㦛 㦜 㦝 㦞 㦟 㦠 㦡 㦢 㦣 㦤 㦥 㦦 㦧 㦨 㦩 㦪 㦫 㦬 㦭 㦮 㦯 㦰 㦱 㦲 㦳 㦴 㦵 㦶 㦷 㦸 㦹 㦺 㦻 㦼 㦽 㦾 㦿 㧀 㧁 㧂 㧃 㧄 㧅 㧆 㧇 㧈 㧉 㧊 㧋 㧌 㧍 㧎 㧏 㧐 㧑 㧒 㧓 㧔 㧕 㧖 㧗 㧘 㧙 㧚 㧛 㧜 㧝 㧞 㧟 㧠 㧡 㧢 㧣 㧤 㧥 㧦 㧧 㧨 㧩 㧪 㧫 㧬 㧭 㧮 㧯 㧰 㧱 㧲 㧳 㧴 㧵 㧶 㧷 㧸 㧹 㧺 㧻 㧼 㧽 㧾 㧿 㨀 㨁 㨂 㨃 㨄 㨅 㨆 㨇 㨈 㨉 㨊 㨋 㨌 㨍 㨎 㨏 㨐 㨑 㨒 㨓 㨔 㨕 㨖 㨗 㨘 㨙 㨚 㨛 㨜 㨝 㨞 㨟 㨠 㨡 㨢 㨣 㨤 㨥 㨦 㨧 㨨 㨩 㨪 㨫 㨬 㨭 㨮 㨯 㨰 㨱 㨲 㨳 㨴 㨵 㨶 㨷 㨸 㨹 㨺 㨻 㨼 㨽 㨾 㨿 㩀 㩁 㩂 㩃 㩄 㩅 㩆 㩇 㩈 㩉 㩊 㩋 㩌 㩍 㩎 㩏 㩐 㩑 㩒 㩓 㩔 㩕 㩖 㩗 㩘 㩙 㩚 㩛 㩜 㩝 㩞 㩟 㩠 㩡 㩢 㩣 㩤 㩥 㩦 㩧 㩨 㩩 㩪 㩫 㩬 㩭 㩮 㩯 㩰 㩱 㩲 㩳 㩴 㩵 㩶 㩷 㩸 㩹 㩺 㩻 㩼 㩽 㩾 㩿 㪀 㪁 㪂 㪃 㪄 㪅 㪆 㪇 㪈 㪉 㪊 㪋 㪌 㪍 㪎 㪏 㪐 㪑 㪒 㪓 㪔 㪕 㪖 㪗 㪘 㪙 㪚 㪛 㪜 㪝 㪞 㪟 㪠 㪡 㪢 㪣 㪤 㪥 㪦 㪧 㪨 㪩 㪪 㪫 㪬 㪭 㪮 㪯 㪰 㪱 㪲 㪳 㪴 㪵 㪶 㪷 㪸 㪹 㪺 㪻 㪼 㪽 㪾 㪿 㫀 㫁 㫂 㫃 㫄 㫅 㫆 㫇 㫈 㫉 㫊 㫋 㫌 㫍 㫎 㫏 㫐 㫑 㫒 㫓 㫔 㫕 㫖 㫗 㫘 㫙 㫚 㫛 㫜 㫝 㫞 㫟 㫠 㫡 㫢 㫣 㫤 㫥 㫦 㫧 㫨 㫩 㫪 㫫 㫬 㫭 㫮 㫯 㫰 㫱 㫲 㫳 㫴 㫵 㫶 㫷 㫸 㫹 㫺 㫻 㫼 㫽 㫾 㫿 㬀 㬁 㬂 㬃 㬄 㬅 㬆 㬇 㬈 㬉 㬊 㬋 㬌 㬍 㬎 㬏 㬐 㬑 㬒 㬓 㬔 㬕 㬖 㬗 㬘 㬙 㬚 㬛 㬜 㬝 㬞 㬟 㬠 㬡 㬢 㬣 㬤 㬥 㬦 㬧 㬨 㬩 㬪 㬫 㬬 㬭 㬮 㬯 㬰 㬱 㬲 㬳 㬴 㬵 㬶 㬷 㬸 㬹 㬺 㬻 㬼 㬽 㬾 㬿 㭀 㭁 㭂 㭃 㭄 㭅 㭆 㭇 㭈 㭉 㭊 㭋 㭌 㭍 㭎 㭏 㭐 㭑 㭒 㭓 㭔 㭕 㭖 㭗 㭘 㭙 㭚 㭛 㭜 㭝 㭞 㭟 㭠 㭡 㭢 㭣 㭤 㭥 㭦 㭧 㭨 㭩 㭪 㭫 㭬 㭭 㭮 㭯 㭰 㭱 㭲 㭳 㭴 㭵 㭶 㭷 㭸 㭹 㭺 㭻 㭼 㭽 㭾 㭿 㮀 㮁 㮂 㮃 㮄 㮅 㮆 㮇 㮈 㮉 㮊 㮋 㮌 㮍 㮎 㮏 㮐 㮑 㮒 㮓 㮔 㮕 㮖 㮗 㮘 㮙 㮚 㮛 㮜 㮝 㮞 㮟 㮠 㮡 㮢 㮣 㮤 㮥 㮦 㮧 㮨 㮩 㮪 㮫 㮬 㮭 㮮 㮯 㮰 㮱 㮲 㮳 㮴 㮵 㮶 㮷 㮸 㮹 㮺 㮻 㮼 㮽 㮾 㮿 㯀 㯁 㯂 㯃 㯄 㯅 㯆 㯇 㯈 㯉 㯊 㯋 㯌 㯍 㯎 㯏 㯐 㯑 㯒 㯓 㯔 㯕 㯖 㯗 㯘 㯙 㯚 㯛 㯜 㯝 㯞 㯟 㯠 㯡 㯢 㯣 㯤 㯥 㯦 㯧 㯨 㯩 㯪 㯫 㯬 㯭 㯮 㯯 㯰 㯱 㯲 㯳 㯴 㯵 㯶 㯷 㯸 㯹 㯺 㯻 㯼 㯽 㯾 㯿 㰀 㰁 㰂 㰃 㰄 㰅 㰆 㰇 㰈 㰉 㰊 㰋 㰌 㰍 㰎 㰏 㰐 㰑 㰒 㰓 㰔 㰕 㰖 㰗 㰘 㰙 㰚 㰛 㰜 㰝 㰞 㰟 㰠 㰡 㰢 㰣 㰤 㰥 㰦 㰧 㰨 㰩 㰪 㰫 㰬 㰭 㰮 㰯 㰰 㰱 㰲 㰳 㰴 㰵 㰶 㰷 㰸 㰹 㰺 㰻 㰼 㰽 㰾 㰿 㱀 㱁 㱂 㱃 㱄 㱅 㱆 㱇 㱈 㱉 㱊 㱋 㱌 㱍 㱎 㱏 㱐 㱑 㱒 㱓 㱔 㱕 㱖 㱗 㱘 㱙 㱚 㱛 㱜 㱝 㱞 㱟 㱠 㱡 㱢 㱣 㱤 㱥 㱦 㱧 㱨 㱩 㱪 㱫 㱬 㱭 㱮 㱯 㱰 㱱 㱲 㱳 㱴 㱵 㱶 㱷 㱸 㱹 㱺 㱻 㱼 㱽 㱾 㱿 㲀 㲁 㲂 㲃 㲄 㲅 㲆 㲇 㲈 㲉 㲊 㲋 㲌 㲍 㲎 㲏 㲐 㲑 㲒 㲓 㲔 㲕 㲖 㲗 㲘 㲙 㲚 㲛 㲜 㲝 㲞 㲟 㲠 㲡 㲢 㲣 㲤 㲥 㲦 㲧 㲨 㲩 㲪 㲫 㲬 㲭 㲮 㲯 㲰 㲱 㲲 㲳 㲴 㲵 㲶 㲷 㲸 㲹 㲺 㲻 㲼 㲽 㲾 㲿 㳀 㳁 㳂 㳃 㳄 㳅 㳆 㳇 㳈 㳉 㳊 㳋 㳌 㳍 㳎 㳏 㳐 㳑 㳒 㳓 㳔 㳕 㳖 㳗 㳘 㳙 㳚 㳛 㳜 㳝 㳞 㳟 㳠 㳡 㳢 㳣 㳤 㳥 㳦 㳧 㳨 㳩 㳪 㳫 㳬 㳭 㳮 㳯 㳰 㳱 㳲 㳳 㳴 㳵 㳶 㳷 㳸 㳹 㳺 㳻 㳼 㳽 㳾 㳿 㴀 㴁 㴂 㴃 㴄 㴅 㴆 㴇 㴈 㴉 㴊 㴋 㴌 㴍 㴎 㴏 㴐 㴑 㴒 㴓 㴔 㴕 㴖 㴗 㴘 㴙 㴚 㴛 㴜 㴝 㴞 㴟 㴠 㴡 㴢 㴣 㴤 㴥 㴦 㴧 㴨 㴩 㴪 㴫 㴬 㴭 㴮 㴯 㴰 㴱 㴲 㴳 㴴 㴵 㴶 㴷 㴸 㴹 㴺 㴻 㴼 㴽 㴾 㴿 㵀 㵁 㵂 㵃 㵄 㵅 㵆 㵇 㵈 㵉 㵊 㵋 㵌 㵍 㵎 㵏 㵐 㵑 㵒 㵓 㵔 㵕 㵖 㵗 㵘 㵙 㵚 㵛 㵜 㵝 㵞 㵟 㵠 㵡 㵢 㵣 㵤 㵥 㵦 㵧 㵨 㵩 㵪 㵫 㵬 㵭 㵮 㵯 㵰 㵱 㵲 㵳 㵴 㵵 㵶 㵷 㵸 㵹 㵺 㵻 㵼 㵽 㵾 㵿 㶀 㶁 㶂 㶃 㶄 㶅 㶆 㶇 㶈 㶉 㶊 㶋 㶌 㶍 㶎 㶏 㶐 㶑 㶒 㶓 㶔 㶕 㶖 㶗 㶘 㶙 㶚 㶛 㶜 㶝 㶞 㶟 㶠 㶡 㶢 㶣 㶤 㶥 㶦 㶧 㶨 㶩 㶪 㶫 㶬 㶭 㶮 㶯 㶰 㶱 㶲 㶳 㶴 㶵 㶶 㶷 㶸 㶹 㶺 㶻 㶼 㶽 㶾 㶿 㷀 㷁 㷂 㷃 㷄 㷅 㷆 㷇 㷈 㷉 㷊 㷋 㷌 㷍 㷎 㷏 㷐 㷑 㷒 㷓 㷔 㷕 㷖 㷗 㷘 㷙 㷚 㷛 㷜 㷝 㷞 㷟 㷠 㷡 㷢 㷣 㷤 㷥 㷦 㷧 㷨 㷩 㷪 㷫 㷬 㷭 㷮 㷯 㷰 㷱 㷲 㷳 㷴 㷵 㷶 㷷 㷸 㷹 㷺 㷻 㷼 㷽 㷾 㷿 㸀 㸁 㸂 㸃 㸄 㸅 㸆 㸇 㸈 㸉 㸊 㸋 㸌 㸍 㸎 㸏 㸐 㸑 㸒 㸓 㸔 㸕 㸖 㸗 㸘 㸙 㸚 㸛 㸜 㸝 㸞 㸟 㸠 㸡 㸢 㸣 㸤 㸥 㸦 㸧 㸨 㸩 㸪 㸫 㸬 㸭 㸮 㸯 㸰 㸱 㸲 㸳 㸴 㸵 㸶 㸷 㸸 㸹 㸺 㸻 㸼 㸽 㸾 㸿 㹀 㹁 㹂 㹃 㹄 㹅 㹆 㹇 㹈 㹉 㹊 㹋 㹌 㹍 㹎 㹏 㹐 㹑 㹒 㹓 㹔 㹕 㹖 㹗 㹘 㹙 㹚 㹛 㹜 㹝 㹞 㹟 㹠 㹡 㹢 㹣 㹤 㹥 㹦 㹧 㹨 㹩

- 리고 있었던 것이지 이를 통해 부처와의 약 속을 믿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 이승 사람이 저승 사람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통해 비현실적인 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 저승길로 떠나야 한다는 여인의 말에서 양생과 사랑을 지속하지 못하고 떠나는 이별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삼세의 인연을 만나게 되었다는 말에는 인간의 삶이 지속된다는 윤회사상이 담겨 있다. ㉣ 여인이 저승으로 떠나고 양생 또한 슬픔이 더해져서 여인의 부모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흐느꼈다는 부분에서 사랑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비극적 결말을 확인할 수 있다.
- 19) ㉠ ㉡ [가]는 임의 옷을 짓는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는 하나, 처음과 끝이 유사하게 설정된 수미상관의 구성은 드러나지 않는다. [나]도 마찬가지로 수미상관의 구성은 확인할 수 없다. ㉢ [가]는 '~입니다'와 같은 경어체를 활용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공경을 나타내고 있다. ㉣ [나]는 '흰 것', '시퍼렇게' 등 색채 이미지를 활용해 대상이 지닌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 [나]는 '나는 결코 손을 흔들지는 않으리'와 '나는 결코 옷자락을 보이지 않으리' 등에서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해 화자의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 [가]와 [나]는 모두 화자인 '나'를 작품에 직접 노출해 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20) ㉠ ㉡ [나]의 화자는 한계령에서 고립되어 '못 잇을 사람'과 묶였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내고 있다. '나는 결코 손을 흔들지는 않으리'는 한계령에 묶여 계속 고립되고 싶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헬리콥터'가 '못 잇을 사람'을 데려간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헬리콥터'에 대한 반감을 역설적 발상을 통해 드러낸 것은 아니다. ㉢ [가]에서 '짓지 아니한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놓는 것 뿐'이라는 것은 옷 짓는 일을 완성하지 않고 입을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로, 옷을 입을 '당산'이 부재한 상황을 암시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 [가]의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는 옷을 완 성하게 되면 당신을 기다리는 일조차 의미없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옷 짓는 일을 놓아두는 것으로, '당산'과 이별한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화자의 심리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 [가]의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는 옷을 다 완성하면 입을 기다리는 일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생각에 옷 짓는 일을 남겨두는 것으로, 손을 놓으며 '당산'을 기다리는 일이 이별을 견디는 힘이 되고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 [나]의 '오오 눈부신 고립'은 한계령에 묶여 있는 즐거움을 나타낸 역설적 표현으로, '못 잇을 사람'과 고립 되어 운명을 함께 하고 싶은 소망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 21) ㉠ ㉡ ㉢ : '심의', '도포', '자리옷' 등을 모두 지어내어 입을 기다리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지, 이를 통해 화자의 소박한 생활 태도를 강조하려는 것은 아니다. ㉣ ㉤은 '손때'가 많이 묻은 일을 강조한 것인데,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과 관련해 시간의 오랜 흐름이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 ㉦은 '한계령'에 묶이는 즐거움을 나타낸 것으로, 다른 사람은 한계령에서 빠져나가도 화자는 임과 함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한계령에 남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은 한계령이 전부 다 눈으로 뒤덮여 오직 흰색뿐이라는 것으로, 화자의 소망인 고립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은 '일용할 양식을 즉 먹이를 뿌리는 일과 관련해 한계령의 '고라니'나 '꿩'들에게 빠짐없이 양식이 돌아 가 생존에 도움이 됨을 강조하고 있다.